

총장후보 선거 설문 교·직원 의견 보니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이사회는 총장선임제 3개 안이 전달되기 전, 교수의회가 구성원 의견을 모은 '제17대 총장후보선거 설문조사' 결과를 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이사회가 대학에 전달한 3개 안은 구성원 제안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교수의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16대 총장 후보 선출과정의 불만과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364명이 참여했다.

지난 선출방식 평가에는 선임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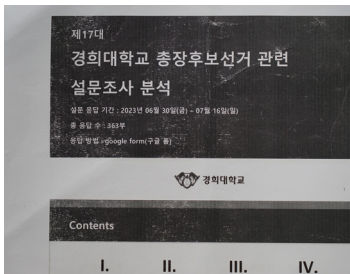
정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과 직원 278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지난 '직선+간선제'에 교원 57%, 직원 64%는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원 23%와 직원 10%만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직접 선거 운동 금지는 전체 응답자 52%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수의회는 '토론회' 등 소통 및 선거운동 실시를 제안했다.

응모자 자체 점검 리스트, 논문·저서 리스트와 표절 여부,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학위증명서 등 후보자 자격 판단 사항에는 교원 81%와 직원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였던(최종 단계에서는 동문 투표 참여가 없었다) 투표 반영비율에서는 두 집단의 반응이 엇갈렸다. 교원 32%는 현행 유지에 공감했지만, 직원 81%는 동의하지 않았다. 단 2%의 직원만이 투표 비율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교원이 서술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다득표자가 총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 "결국 이사회 최종 결정이다"는 의견이 있었다. 직원은 "교수 투표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교원과 직원 모두 법인 이사회의 최종 권한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모델 평가 설문에서는 구성 비율(법인대표:5, 교원:15, 직원:5, 학생:5, 동문:5)의 적절성에서 직원 61%, 교원 36%가 부적합으로 판단



교수의회가 제공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

했다. 이어 총추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법인 이사장이 직접 임명했던 방식에 전체 응답자 62%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총추위 구성 시 법인 이사회와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교원과 직원 모두 총추위 구성이 촉박하게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 모두 총추위는 선거 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9개월 전을 가장 선호했다. 열흘이라는 짧은 선거 및 투표 기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설문조사 결과,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원과 직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자격 판단 사항에도 두 집단 모두 같은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투표 비율과 총추위 구성 비율에 직원 측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수의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직선제 ▲후보3인 추천 ▲총추위 현행 유지 ▲독립적 총추위 위원 임명 등을 법인에 전달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동문회 ▲제2노조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측이 발표한 가안에 대해 교수의회 김도균 의장은 "전달한 의견과는 다르지만 이사회 측에서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교수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트로이카’ 4년 만에 부활

박희원 기자 rxxtfjxy@khu.ac.kr

【서울】동대문구 3개 대학(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연합 역동전 'TROIKA(트로이카)'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의 대면 진행이다.

트로이카는 우리학교와 서울시립대(시립대), 한국외대(외대) 3개 학교가 연합해 개최한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남자 축구 ▲여자 축구 ▲농구 ▲테니스 ▲e스포츠 등 5개 종목이 진행됐다. 개막식은 11일 시립대에서 열렸다. 풍물패 행진, 공연과 응원전 등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학교는 9월 초 진행된 예선전에서 농구, 남자축구, e스포츠 종목에서 각각 승리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농구 결승은 지난 11일 외대 오바마 홀에서, 남자축구 결승은 지난 12일 시립대 대운동장에서, e스포츠 결승은 지난 13일 신촌 젠트리 피시방에서 열렸다. 결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시립대를 상대로 ▲농구 24:27 ▲남자축구 0:1 ▲e스포츠 0:2로 패하며 3개 종목에서 준우승했다.

우리학교 대표팀은 고향대회운



우리학교 선수가 트로이카 남자 축구 종목에서 시립대를 따돌리며 드리블을 하고 있다.

(사진:고향대회운영위원회 제공)

영위원회(고운위) 주관하에 구성됐다. 고운위는 서울캠퍼스 체육회다. 남자축구와 농구는 교내 대회인 고향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동아리에 4장의 선수 추천권을, 그 외 팀에게는 1~2장의 추천권을 부여했다. 여자축구, 테니스, e스포츠 종목은 자유롭게 신청받았다.

이번 트로이카에서는 체육 분야에서 교류하는 '역동전'과 함께 '감동제'와 '악동제'도 함께 진행했다. 체육에 이어 학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3개 대학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의식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감동제에서는 시사경제 토론대

회, 청년정책공모전, 토크콘서트 등 학술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악동제에서는 동아리 공연, 응원전 등의 행사가 열렸다.

폐막식은 지난 13일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감동제, 악동제, 역동전 시상과 각 학교 동아리 공연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트로이카는 2019년 처음 개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에는 ▲남자축구 ▲여자축구 ▲농구 ▲피구 ▲테니스 ▲농구 ▲e스포츠 6종목이 진행됐으며 당해 관중은 약 1,500명이었다.

고운위는 "4년 만에 펼쳐지는 역동전인 만큼 각 학교 체육회 및 운

영진이 최대한 노력해 3개 대학 학생들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학교별 응원존 설치나 다양한 응원이벤트로 대표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고 관중과 선수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우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행사 TF 팀 소속 김세현(주거환경학 2021) 씨는 "3개 대학 연합행사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없이 마무리돼 기쁘다"며 "특히 이번 축제는 타 학교 학생과의 교류로 공동체 의식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승 우승 핸드볼부 최강 입증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우리학교 핸드볼부가 지난 12일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국대학핸드볼 통합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조선대를 28-24로 꺾으며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학교는 초반부터 여유롭게 조선대를 공략했다. 선제골은 전반 1분 조선대가 기록했지만 곧바로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와 강덕진(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역전하며 줄곧 경기를 리드했다.

하지만 조선대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조선대는 후반 15분부터 8분 동안 6골을 넣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우리학교도 연이은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추격을 따돌렸다. 경기 후반, 우리학교는 교체 선수를 적절히 활용해 끝까지 리드를 지켰고 최종 스코어 28-24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핸드볼부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섯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도자상을 수상한 우리학교 핸드볼부 차재우 코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며 "고생 많았던 선수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했다.